

CLUB LIAISON

보도자료

오스트리아, 광주비엔날레 국가관 개관

<클럽 리에종(Club Liaison)>

리즐 라프, 루카 본아모레 & 라우 루카릴라, 스티나 포스, 해파리, 남혜지,
다니엘 팜프, 카롤리나 프로이슐, 알렉스 프란츠 젯바우어

2024 년 9 월 7 일 — 12 월 1 일

오프닝 퍼포먼스: 2024 년 9 월 5 일 목요일 오후 6 시

알렉스 프란츠 젯바우어

오는 9 월 7 일 개막하는 아시아 최대 현대미술 축제인 ‘제 15 회 광주비엔날레’에서 오스트리아가 첫 국가관 전시를 펼친다. 오스트리아는 광주비엔날레 참여를 맞아 현대미술 작가인 리즐 라프(Liesl Raff)와 손잡고 <클럽 리에종(Club Liaison)>을 선보인다. 카바레 무대, 언더그라운드 클럽, 무허가 주점 등에서 영감을 받은 이 작품은 설치 미술과 퍼포먼스를 결합해 관람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전망이다.

수년간 리즐 라프는 서로 대립되는 내부와 외부, 주관과 객관, 감각과 이성 사이의 미묘한 조화, 그리고 이것들이 서로 뒤얽혀 분리 불가능한 전체를 형성하는 조각적 실천을 추구해왔다. 작가는 또한 인간의 육체적인 에너지, 아름다움 그리고 연약함에 주목하여, 가변성과 신축성을 특징으로 하며 마치 제 2 의 피부처럼 다양한 표면에 자연스럽게 안착하는 라텍스(latex)를 주재료로 활용한다. 고무나무에서 희뿌연 우유 같은 액체 상태로 추출되는 천연 소재인 라텍스는 신체, 과정, 행동을 지향하는 라프의 예술적 접근법을 완벽하게 소화한다.

AUSTRIAN PAVILION AT THE 15th GWANGJU BIENNALE, SOUTH KOREA

CLUB LIAISON

올해로 30 주년을 맞는 제 15 회 광주비엔날레는 공간이라는 주제를 판소리 형식으로 구현한다. ‘판소리, 모두의 울림’이라는 비엔날레의 주제에 맞게 리즐 라프는 오스트리아의 첫 번째 국가관인 이강하미술관의 간소한 전시 공간을 감각적인 경험으로 변모시켜 관객이 즐길 수 있는 영역과 보호구역을 개방하고 퍼포먼스 프로그램을 위한 무대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작가가 직접 수작업으로 만든 보랏빛 라텍스 커튼들이 각기 다른 길이와 주름을 연출하며 실내를 호화롭게 감싸고, 공간 한가운데 분위기 있는 조명이 드리워진 무대가 자리한다.

리즐 라프가 만들어낸 내밀한 공간과 전환 구역은 무대와 객석, 휴식과 퍼포먼스 장소 간의 경계를 허물어뜨렸다. 라프의 오브제들은 연극적이면서 사회적인 공간들의 규칙과 구조를 변형하고 실험하는 한편, 오스트리아 작가 카롤리나 프로이슬(Karolina Preuschl)이 작곡하였으며 전시 공간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음풍경(音風景, 사운드스케이프)과 긴밀한 협업(liaison)을 구축한다.

광주비엔날레가 진행되는 약 3 개월 동안, 클럽은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무대를 다양한 범주의 행위 예술에 개방한다. 이번 프로그램에 초대된 예술가들은 오스트리아와 한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로 현대무용에서 공연 예술, 실험 음악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대중 장르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개념적이고 실험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실천 양식에 대한 관심을 공유한다. 이들은 카바레에서 영감을 받은 <클럽 리에종(Club Liaison)>에 화답하며, 터무니없고 드라마틱하며 감각적인 것의 전복적 잠재성을 탐구할 예정이다. 본 공연에서는 무대가 어떻게 경계를 넓히고 미묘한 변화를 삽입하며, 기대와 규범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새로운 해석을 제공하는 장소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퍼포먼스 프로그램들은 <클럽 리에종(Club Liaison)>의 핵심적 요소로써 집단 경험의 변화시키는 힘을 강조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CLUB LIAISON

금번 광주비엔날레 오스트리아 국가관에서 선보이는 리즐 라프의 전시는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비엔나의 현대미술 공간, “프란츠 요제프스 카이 3(fjk3 – Contemporary Art Space)”에서 열린 <리에종(Liaison)>전시회의 일환으로 오스트리아 비엔나 문화축제인 비너 페스트보헨(Wiener Festwochen)과 협력하여 재해석한 프로젝트이다. 본 국가관은 fjk3의 예술감독인 피오나 리베어(Fiona Liewehr)가 기획했으며, 공연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위치하며 현대무용과 퍼포먼스 아트를 전문으로 하는 예술 기관인 탄츠콰르티에(Tanzquartier)의 카롤리나 뇌바우어(Carolina Noebauer)가 담당하였다.

광주비엔날레의 오스트리아 국가관은 필레아스 – 오스트리아 현대미술 사무국(Phileas – The Austrian Office for Contemporary Art)이 주최하고 오스트리아 예술문화·행정·체육부가 주관하며 오스트리아 유럽외교부가 후원한다.

CLUB LIAISON

오스트리아 파빌리온 소개

<클럽 리에종(Club Liaison)>이 이강하미술관의 오스트리아 파빌리온에서 열린다. 전시 공간의 금속으로 만든 격자 천정에 라텍스 천이 걸려 있다. 라텍스 천은 매끄러운 검은색 벽에서 약 80 센티미터 떨어진 상태로 배치되어 전시 공간을 둘러싸는 U자 형 복도를 형성한다. 이 보랏빛 라텍스 커튼들은 각기 다른 길이와 주름을 연출하며 실내를 호화롭게 감싸는 동시에 공간을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눈다. 공간 한가운데 분위기 있는 조명이 드리워진 무대가 자리하며 복도와 복도에 전시되어 있는 설치작품으로 관객을 끌어들이는다.

라텍스 커튼은 밧줄을 이용해 설치했으며 일체의 연결 재료가 항상 단단하게 묶여 있다. 리즐 라프는 황마를 보강재로, 밧줄을 매다는 장치로 작품에 직접 포함시켜 황마와 밧줄이 라텍스를 흡수하고 라텍스에 감싸여 황마와 밧줄, 그리고 커튼이 영구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특히 밧줄을 라텍스에 순차적으로 끼워 넣어 일종의 시각적 리듬과 장식 효과를 만들어 낸다.

벽을 따라 세 겹의 라텍스 커튼 사이에 배치된 은은한 조명이 주변을 장식하여 장식품이자 존재를 위한 안식처로 작용한다. 이 복도는 공간적 여정 뿐만 아니라 극적인 경험 또한 제공하여 마치 정말로 퍼포먼스 예술가라도 된 듯 상호작용에 따라 변화한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신체를 통해 퍼포먼스 아트의 진수를 구현하는 전환 구역은 <클럽 리에종>의 핵심 영역으로, 정해진 퍼포먼스 프로그램의 일정에 따라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변하는 에너지가 이 공간에 주입된다.

커튼처럼 걸려있는 여러 겹의 라텍스는 관객으로 하여금 그 사이를 걸어보고 싶게 하며 동시에 피부의 감촉이 느껴질 듯한 친밀한 공간을 제공한다. 이 공간은 마치 무대 뒤편에 있는 것처럼 휴식을 찾는 사람이면 누구나 반긴다. 공간의 설계는

CLUB LIAISON

전통적인 무대와 유사하여 공간의 실제 경계를 숨기고 하나의 통제된 세상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이강하미술관의 <클럽 리에종> 무대에서 이와 같은 환상은 드러나기 마련인데, 무대에 설치된 은은한 조명이 무대 위의 세트와 구조물 사이의 경계를 비추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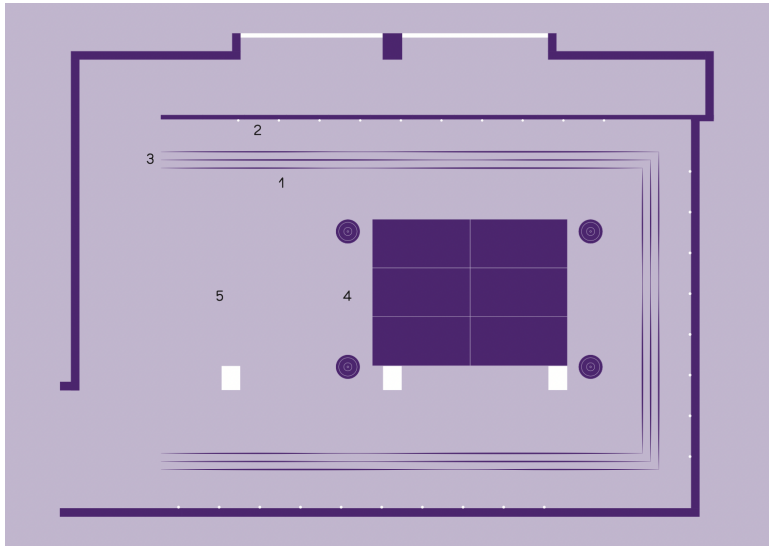
무대의 주인공과 기술팀이 똑같이 공유하는 이 경계 공간은 현실과 극장의 매력을 잇는다. 지면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떠 있는 플랫폼일 뿐인 무대는 그 자체로 공연자와 관객 사이에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며, 이를 통해 참여자와 관찰자 간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

공연이 없는 시간에는 사운드 디자이너이자 보컬리스트인 카롤리나 프로이슐(Karolina Preuschl)이 제작한 새로운 실험적 사운드 작품인 ‘자이트가이스트(Zeitgeist)’가 전시 공간을 음향으로 가득 채운다. 이 작품은 광주비엔날레의 주제인 판소리를 반영하여 시대를 초월한 목소리 표현과 스토리텔링을 강조한다.

독일 DISTANZ 출판사에서 2024 년 발행한 도록 <Club Liaison>에 수록된 Cathrin Mayer 의 글 중 일부를 한국어로 번역하였습니다.

CLUB LIAISON

작품 목록



- 1 커튼들, 2023/2024**
라텍스, 안료, 황마, 밧줄, 실리콘 오일
가변설치
- 2 뱀(변주들), 2023/2024**
금속, 라텍스, 나일론, 털실, 안료, 활석, 케이블, 램프
가변설치
- 3 조명 설치, 2024**
led 스트립, 알루미늄 프로파일, 확산필터
가변설치
- 4 무대, 2024**
금속, 스포트라이트, 무대 요소들
가변설치
- 5 자이트가이스트(Zeitgeist), 2024**
카롤리나 프로이슐의 사운드 작품

CLUB LIAISON

약력

리즐 라프 (b. 1979, 독일 슈투트가르트)는 오스트리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조각가로 재료의 촉각적 특질, 특히 그 성질에 주목한다. 작가는 또한 인간의 육체적인 에너지, 아름다움, 그리고 연약함에 주목하여, 가변성과 신축성을 특징으로 하며 마치 제 2 의 피부처럼 다양한 표면에 부드럽게 안착하는 라텍스(latex)를 주재료로 활용한다. 그녀는 자신의 설치 작품에서 쉼터, 피난처와 안정감을 제공하는 보호 구역들을 만들어낸다. 라프의 작업은 재료와 환경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지 않으며 오히려 대화를 위한 공간을 열어낸다.

라프는 오스트리아 빈의 프란츠 요제프스 카이 3(fjk3 - Contemporary Art Space)와 소피 타파이너(Sophie Tappeiner), 스위스 바젤에 위치한 니콜라스 크루프 갤러리 (Nicolas Krupp Gallery), 예테보리의 NEVVEN, 프라이부르크 비엔날레, 코펜하겐 샤프 프로젝트(Sharp Projects)등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단체전으로는 스위스 취리히의 갤러리 에바 프레젠후버에서 열린 <멜랑콜리아, MELENCOLIA>, 오스트리아 빈 벨베데레 21 현대미술관 <아방가르드와 현대미술, Avantgarde and the Contemporary>와 빈 현대미술관(Mumok)에서 열린 <변화하는 무목 컬렉션 즐기기, Enjoy - the mumok collection in change>, 이탈리아 메라노 쿤스트 메란 미술관(Kunst Meran Merano Arte)에서 개최한 <분노, Resentment>등이 있다. 또한 올해 9 월 프랑스에서 열릴 제 17 회 리옹 비엔날레와 2025 년 스위스 취리히갤러리 에바 프레젠후버에서 개인전을 앞두고 있다.

CLUB LIAISON

피오나 리베어 (Fiona Liewehr)는 오스트리아 빈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미술사학자, 기획자, 작가이자 에디터이다. 그녀는 오스트리아 빈과 잘츠부르크, 독일 함부르크에서 미술사와 경제학을 전공하였다. 리베어는 빈의 현대미술 공간인 프란츠 요제프스 카이 3(fjk3 – Space for Contemporary Art)의 현 예술감독이며, 이전에는 벨베데레 미술관, 빈 현대미술관(Mumok), 게오르그 캄겔 갤러리 등 다수의 예술기관에서 근무하였다. 그녀의 큐레이팅은 학제간의 크로스오버, 인식의 현상학, 사회적 관계들의 결과로 빚어지는 확장된 형태의 공간적 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카롤리나 뇌바우어(Carolina Noebauer)는 공연과 시각예술 기획자로, 오스트리아 빈의 현대무용과 공연을 맡고 있는 탄츠콰르티에 빈(Tanzquartier Wien)의 현 큐레이터이다. 그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오스트리아 빈 문화축제인 비너 페스트보헨(Wiener Festwochen)의 프로그램 극작술 연구가, 즉 드라마투르그(dramatrug)로 재직했다. 그녀는 독립 예술 공간인 쿤스트페어라인 케빈 스페이스(Kunstverein Kevin Space)의 공동 창립자이기도 하다.

CLUB LIAISON

퍼포먼스 프로그램

알렉스 프란츠 젯바우어 (Alex Franz Zehetbauer)

9 월 5 일 목요일 오후 7 시

9 월 6 일 금요일 오후 3 시

알렉스 프란츠 젯바우어(b. 1990, 미국 브루클린)는 소리의 안무가, 퍼포먼스 예술가이자 가수이다. 비평가들은 그를 천사, 늑대의 괴물, 빨간 눈의 악마라고 칭한 바 있다. <클럽 리에종(Club Liaison)>에서 작가는 관객을 고전적인 분위기의 피아노 바로 데려간다. 피아노 앞에 가수가 있고 작가의 레퍼토리가 손님들의 모임 사이를 간간히 끼어든다. 어떤 순간에는 고무적이고 다른 순간에는 기괴한 젯바우어의 퍼포먼스는 노래의 다양한 역할과 문화적 영향력을 탐색하며 이상하고도 낯익은 친밀함을 자아낸다.

남혜지 + 스티나 포스 (Hyeji Nam + Stina Force)

9 월 7 일 토요일 오후 7 시

남혜지(b. 1993, 대한민국 서울)는 기술, 몸 정치, 사회적 금기와 디지털 문화 등의 주제에 천착하는 학제적 예술가이자 음악인이다. 남혜지는 <클럽 리에종(Club Liaison)>에서 무용과 실험적인 사운드 작품이 교차하는 감각적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부드럽지만 힘 있는 움직임과 보컬을 통해 작가의 몸은 AI가 생성한 음향들을 활성화하는 전도체로 기능한다. 퍼포먼스 예술가와 인공지능의 친밀한 듀엣은 음악 기술과 인체의 본질적인 작동 원리 간의 풍부한 교집합을 탐색한다.

CLUB LIAISON

부조리함과 괴상함에 대한 확고한 취향을 가진 안무가이자 퍼포먼스 예술가이며 독학 드럼연주자인 **스티나 포스**(b. 1989, 스웨덴 예테보리)는 1인 여성 펑크밴드 **스티나 포스(Force)**로 활동하며 독창적인 퍼포먼스의 공연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포스의 음악을 녹음한 어떠한 기록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녀의 모든 공연은 언제나 그 순간에 전개됨으로써 전무후무하다. 목소리 실험, 그로테스크한 독백, 날것의 드럼 비트로 관객을 강력(Force)하게 벽에 밀어붙인 뒤 마음대로 조종한다. 안정성과 불안정성을 능숙하게 저울질하는 스티나 포스의 퍼포먼스는 위트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에너지로 충만하다.

해파리 + 다니엘 팜프 (Haepaary + Danielle Pamp)

10 월 19 일 토요일 오후 7 시

해파리는 최혜원(b. 1988, 대한민국 부산)과 **박민희**(b. 1983, 대한민국 서울)로 이루어진 얼터너티브 일렉트로닉 듀오이다. 이 듀오는 조선시대 궁중음악인 종묘제례악의 멜로디와 가사들, 그리고 언제나 남성에게 의해 수행되어 온 남창가곡을 재해석하였다. 해파리의 트랙들은 엄격한 형식과 규율로 점철된 유교 음악에 레ιβ와 트랜스의 어법을 결합해 놀라운 방식으로 풀어낸다. 해파리의 세련된 사운드스케이프는 친밀한 낯선 이들을 외딴 파티로 초대한다.

다니엘 팜프 (b. 1991, 스웨덴 스톡홀름)는 화가이자 퍼포먼스 예술가이다. 팜프의 퍼포먼스는 카바레, 오페레타와 1930 년대의 히트송들을 통해 지나간 시대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고혹적인 비애와 금지를 모두 담고 있는 팜프의 노래는 그 존재와 삶의 역사가 너무 쉽게 잊혀지곤 하는 작품과 인간을 대변한다.

팜프의 작업에서 쿼어 서사는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 전개되며 이와 함께 역사의 새로운 장이, 그리고 고유한 탁월함이 탄생한다.

CLUB LIAISON

루카 본아모레 & 라우 루카릴라 + 카롤리나 프로이슬

(Luca Bonamore & Lau Lukkarila + Karolina Preuschl)

11 월 30 일 토요일 오후 7 시

루카 본아모레(b. 1996, 이탈리아 로마)와 **라우 루카릴라**(b. 1987, 핀란드 오울루)는 귀여한 회복탄력성과 기쁨을 위한 수행적 전략으로써의 키치(kitsch)와 표현 연극, 허구적 믿음에 관한 관심을 공유하는 안무가이자 퍼포먼스 예술가이다. 어린 시절 우상에 대한 애정 어린 친밀감을 극적으로 구현한 안무를 완성해 나감에 따라 두 예술가의 놀라울 만큼 훌륭한 퍼포먼스는 공동의 기억 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밀한 기억을, 그리고 환상을 불러일으키며 어딘가 가까운 곳에서 잠자고 있을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소환한다.

카롤리나 프로이슬(b. 1991, 오스트리아 비엔나)은 음악가이자 작가이며 시각 예술가이다. 사운드 아트와 행위예술을 엮어내는 프로이슬은 스스로 써 내려간 텍스트를 해석하기 위해 아날로그 신시사이저와 목소리를 사용한다. 작가의 퍼포먼스들은 거칠고 재치 있으며 놀라움으로 가득하다. 이 장난기 많은 반항아는 주파수 스펙트럼의 경계에서 전자기기, 노이즈, 의성어의 소리, 보컬 실험을 즉흥적으로 변주하여 다양한 의미와 해석의 층위들을 견고한 방식으로 융합한다.

CLUB LIAISON

소감

리즐 라프, 예술가

“<클럽 리에종(Club Liaison)>은 카바레 무대, 무허가 술집, 언더그라운드 클럽에서 영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판소리,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공간, 스토리텔링, 집단 경험에서 나오는 변혁적인 힘에서도 자극을 받았습니다. 저의 조각적 실천에서 저는 사람들과, 저의 작품과, 그들이 있는 공간이 서로 만나도록 하고 그들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는 데에서 무한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저의 전시를 통해 따뜻하고 안온하며 조용한 상태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감정을 느껴보는 경험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광주비엔날레 오스트리아 파빌리온에서 이와 같은 전시를 선보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피오나 리베어, 큐레이터

“이번 광주비엔날레의 첫 오스트리아 파빌리온에서 큐레이션을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번 전시 <클럽 리에종(Club Liaison)>은 순수한 설치 예술 작품,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생동감 넘치는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 역동적인 삶, 음악, 공연과 시각 예술, 그리고 세계적인 공동체를 한데 엮고자 했습니다. fjk3 – Space for Contemporary Art 전시 이후 이번 오스트리아 파빌리온에서 열리는 리즐 라프의 전시는 라프가 구체적인 공동체 경험에 대해,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어내어 나타나도록 하고 사람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능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섬세한 직관을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CLUB LIAISON

카롤리나 뇌바우어, 퍼포먼스 프로그램 큐레이터

“리즐 라프의 작품은 항상 친밀한 연결을 추구해왔습니다. 라프의 조각을 형성하는 다양한 재료들 사이에서, 작품의 주변 또는 아래에 모이는 관객들 사이에서, 그리고 협업하는 동료들과 그들의 작업에 대해 말입니다. 그렇기에 라프가 사람들이 한 공간에 공존하며 협력적인 노력에 의존하고 집단적인 경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하나의 장르로서 공연 예술에 끌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클럽 리에종(Club Liaison)>은 경계와 장면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서로가 좀 더 가까워지는 프로젝트로, 저는 광주비엔날레에서 선보이는 오스트리아의 첫 번째 파빌리온이 뛰어난 시각 예술가의 단독 전시일 뿐만 아니라 무용, 퍼포먼스, 실험음악 분야의 신진 예술가들에게도 경험의 장을 제공할 수 있어서 특히 기쁩니다.”

안드레아 마이어, 오스트리아 예술문화부 장관

“광주비엔날레 창설 30 주년을 맞이하여 오스트리아가 이 저명한 예술 축제에서 처음으로 국가관 전시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번 참여로 아시아에서 오스트리아 현대미술의 입지를 다지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될 것입니다. 광주비엔날레는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만남과 교류의 장일 뿐만 아니라 이 역동적인 지역을 들여다보는 창이자 오스트리아 예술의 다양성과 혁신적인 힘을 세계 관객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현대미술의 세계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새로운 전시 기회를 열어 나가는데 애쓰고 있는 필레아스 – 오스트리아 현대미술 사무국과 협력하여 오스트리아 작가들이 국제 무대에서 더욱 두드러져 보일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번 참여는 아시아에서 오스트리아의 문화적 입지를 강화하고 새로운 자극을 제공하며 문화간 대화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자 하는 진일보한 움직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CLUB LIAISON

마르게리타 벨크레디, 필레아스 – 오스트리아 현대미술 사무국 부국장

“광주비엔날레에서 오스트리아 파빌리온을 시작으로 베니스에 이어 두 번째 상설 국가관을 운영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이 중요한 발전을 토대로 국제적으로 점점 더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한국의 활기찬 현대 미술의 장에서 오스트리아의 입지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필레아스 – 오스트리아 현대미술 사무국은 전세계의 전시 기회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국제 무대에서 오스트리아 현대미술의 인지도를 높이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무국은 다양한 배경의 관객과 예술가가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며 공통된 추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리즐 라프의 <클럽 리에종(Club Liaison)>으로 파빌리온을 개관하게 되어 매우 뿌듯합니다. 광주비엔날레의 오스트리아 국가관은 계속해서 지역 및 국제 예술 공동체와 지속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으로 활약할 것입니다.

출판

2024 년 제 15 회 광주비엔날레 오스트리아 국가관에서 열리는 리즐 라프의 전시에 맞추어 독일의 DISTANZ 출판사에서 도록 <Liesl Raff – Club Liaison>을 출판합니다. 이 도록은 리즐 라프의 협업에 기반한 실험적인 작품을 조망합니다. 마리안네 도브너, 큐레이터인 피오나 리베어와 카롤리나 뇌바우어가 작품에 대한 소개글을 작성했고, 카트린 마이어가 회고적 제작일지를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카 본아모레와 라우 루카릴라, 스티나 포스, 해파리, 남혜지, 다니엘 팜프, 카롤리나 프로이슐, 알렉스 프란츠 젯바우어가 함께 했습니다.

www.distanz.de/en/liesl-raff/club-liaison

CLUB LIAISON

프로젝트 팀

참여작가

리즐 라프, 루카 본아모레 & 라우 루카릴라, 스티나 포스, 해파리, 남혜지,
다니엘 팜프, 카롤리나 프로이슬, 알렉스 프란츠 젯바우어

큐레이터

피오나 리베어

퍼포먼스 프로그램 큐레이터

카롤리나 뇌바우어

사운드 디자인

카롤리나 프로이슬

프로덕션 매니지먼트와 기획 지원

크리스티나 바르토쉬(Recollect Art Care Asia Ltd.)

아티스틱 프로덕션 매니지먼트

플로리안 마이르

퍼포먼스 프로그램 프로덕션

신진영과 팀(apparat/us)

프레스

카타리나 크라머

그래픽 디자인

한나 사카이

CLUB LIAISON

후원

필레아스 – 오스트리아 현대미술 사무국(Phileas – The Austrian Office for Contemporary Art)는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하는 작가, 큐레이터, 갤러리와 기관들을 지원하며, 국제 현대미술 무대에서 이들의 입지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필레아스는 세계 각국의 비엔날레 및 유관 기관들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새로운 작품의 제작, 전시, 공공 소장 및 기부를 독려한다. 2014 년 설립된 필레아스는 개인 회원들과 오스트리아 예술문화·공공행정·체육부의 후원을 받고 있다.

제 15 회 광주비엔날레

프랑스 기획자, 니콜라 부리오는 ‘판소리-모두의 올림’이라는 제목 아래 2024 년 개최되는 제 15 회 광주비엔날레를 맞아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들에 대한 성찰을 공유한다. 부리오는 한 명의 소리꾼이 북소리(고수)를 동반해 서사를 풀어내는 한국의 판소리 전통에서 영감을 받아 국제 작가들이 광주 곳곳에서 작업을 전개하는 시각적 교향곡을 선보이고자 하였다. 비엔날레 개최 기간 동안 시각적, 음향적 요소들이 다채롭게 어우러지는 다양한 마당들이 도시 구석구석을 물들일 예정이다.

“지난 몇 년간 지구 온난화가 야기한 홍수, 사막화, 해수면 상승과 같은 기후변화와 더불어 팬데믹이 초래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 인류가 공간과 맺어온 관계는 극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니콜라 부리오

CLUB LIAISON

보도 관련 문의

카타리나 크라머 (Catharina Cramer)

press@austrianpaviliongwangju.com

+43 (0) 660 397 3514

보도자료와 이미지는 다음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www.austrianpaviliongwangju.com

www.phileas.art/lieslraffpress

방문정보

<클럽 리에종(Club Liaison)>

제 15 회 광주 비엔날레 오스트리아 국가관

2024 년 9 월 7 일 – 12 월 1 일

오프닝

2024 년 9 월 5 일 오후 6 시

전시공간

이강하미술관 (LEEKANGHA Art Museum)

광주광역시 남구 3.1 만세운동길 6 이강하미술관 (양림동)

3-1manseundong-gil 6, Nam-gu, Gwangju, South Korea

관람시간

화요일 – 일요일: 12 시 – 18 시

월요일 휴관

추석 연휴(9 월 16 일 – 18 일) 휴관

무료입장

CLUB LIAISON

www.austrianpaviliongwangju.com

Instagram [austrianpavilion_gwangju](https://www.instagram.com/austrianpavilion_gwangju)

www.phileas.art/austrian-pavilion-in-gwangju/lieslraff

Instagram [phileas.art](https://www.instagram.com/phileas.art)

gwangjubiennale.org

gwangjubiennalepavilion.org/2024/

Instagram [gwangjubiennale](https://www.instagram.com/gwangjubiennale)

Facebook [GwangjuBiennale](https://www.facebook.com/GwangjuBiennale)

www.lkh-artmuseum.com

Instagram [leekangha_artmuseum](https://www.instagram.com/leekangha_artmuseum)

Facebook [lkhartmuseum](https://www.facebook.com/lkhartmuseum)

Phileas
THE AUSTRIAN OFFICE FOR
CONTEMPORARY ART

 Federal Ministry
Republic of Austria
Arts, Culture,
Civil Service and Sport

 Federal Ministry
Republic of Austria
European and International
Affairs

